



"문경이 충청도 되었다가 경상도가 되었다"

뜻: 어떤 결정이나 상황이 자꾸 이랬다저랬다 번덕스럽게 바뀔 때 쓰는 말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있는 말 변동 · 불안정 · 일관성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문	경	이	충	청	도	되	었	다	가
경	상	도	가	되	었	다			

2단계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문	경	이	충	청	도	되	었	다	가
경	상	도	가	되	었	다			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모기] [차차] [도도기] [기사기] [도도]

웹에서 보기

